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9월 22일(금)  
(윤력 8월 8일)  
Пятница  
22 сентября 2023 г.  
№ 37 (1205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0년 전, 9월 20일, 사할린에서 주 미술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이것은 사할린주의 주요 문화적 기념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 석유와 가스〉 포럼, 외국 대표단 참석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에너지 국제 포럼이 9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열리는 가운데 중국, 인도, 베트남 외국 대표단들이 참석하게 된다.

대표적인 행사에 사할린 주정부의 초청으로 베트남의 시맵(SEAMAP: 해양 촬영 및 지도 제작센터) 회사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 회사는 해양 촬영, 지도 제작, 육지 지형 촬영, 해양 안내 지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위치 선정에 따른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 중 하나다. 사할린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방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관계를 조율하며 〈동방 개방〉을 계속하고 있다.

포럼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는 대러 제재를 배경으로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이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제재의 여건 속에 사할린과 극동지역의 에너지 산업 개발 문제와 수입 대체, 기후

계획 실현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석유산업 서비스의 국산화로 협력 확대를 위해 해외 협력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제반시설 구축으로 석유산업 회사들이 원활히 활동하도록 우리는 석유가스 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올해 포럼의 참가자들은 사업적 관계를 위한 많은 혁신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사할린의 석유·가스 기획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선도 기업, 장비와 기술설치자,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또한 전례대로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표자들과 사회단체 지도자들, 교육 및 학술 연구단체의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대형 국제포럼의 일환으로 원탁 모임, 기획 감독자와 일대일 만남, 패널 토론, 사할린 주정부와 전략적 협약 체결, 탄화수소 생산 및 운송과 가공 회사의 박람회도 열린다.

## 사할린주에서 대규모 농작물 수확 캠페인 진행

9월 1일 사할린 남부를 통과한 태풍이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걱정을 끼친 가운데 침수된 밭의 물빠기 작업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침착한 지침에 따라 예정대로 감자 수확을 시작했다. 9월 첫째 주, 둘째 주 10일 간 전과 같이 감자 수확 운동이 전개되었다. 가장 먼저 농민들이 감자를 캐고, 농작물 수확 전 8월에는 농작물 저장고 수리와 위생처리가 실시됐다.

계속되는 비는 농업 계획의 차질을 주고 있다. 이번 수확기에는 감자 수확 기기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수동 감자 수확기로 씨감자를 캐야 한다.

첫 대규모 감자 수확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습호즈'회사가 시작했다. 이 농장의 감자 재배 면적은 전체 감자 재배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555헥타르이다. 뒤를 이어 '짜플리츠니 습호즈', '코르사코브 습호즈', '소콜롭스키', '루스'농산업체가 수확에 나섰다. 9월 하순에는 사할린 전 지역의 농산업체들이 수확에 나설 예정이다. 수확한 감자는 저장고로 보낸다. 이미 5천 톤의 감자가 농장 저장고에 들어갔고, 조기 수확한 씨감자는 5천600톤으로 지난해 비해 감소되지 않았다.

## 사할린에 급성호흡기 감염 증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할린주에 급성호흡기 감염 환자가 1,528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주보다 환자 수가 40%나 증가했다고 사할린주 러시아 소비자보호청이 밝혔다.

감염 속도가 적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아동과 성인 연령층에서도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이러스 중에는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가 우세했다. 지난주에는 비병원성 폐렴 환자가 39명으로 나타났다.

9월 11일 - 17일 사이 사할린과 쿠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11명 발생, 모두 경미한 병원성 급성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였다.

## 단신

### 주두마에서 사할린 소수민족의 대표자 승인

소수민족의 법률에 따라 사할린에 전권 대표직이 생겼다.

2023년 9월 20일 사할린 주두마 회의에서 사할린 소수민족 전권대표로 알렉세이 리만조가 의원들의 승인을 얻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의 법적 대표자를 주두마의 승인과 소수민족 대표자협의회를 동의할 얻어 주지사가 임명했다.

임명되기까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리만조를 후보자로 추천했고, 그를 남쪽 후손의 장로인 블라디미르 상기와 시베리아와 극동 소수민족연맹 회장 그리고리 레드코브, 7개 지방 소수민족 협회 중 5개 협회가 지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수민족 협회 임원들이 투표한 가운데 전체의 81%로 알렉세이 리만조가 지지를 얻었다. 이런 상황이 최종 결정 채택의 요인이 되었다.

### 러시아 패럴림픽 대표팀, 사할린에서 전지 훈련

알파인 스키 종목 러시아 패럴림픽 대표팀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워스트크' 강습-훈련 센터와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 단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 선수팀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할린의 선수들로 구성돼 다가오는 시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 9월 19일, 사할린주의 연어 어획량 54.5만 톤에 달해

사할린 수산부가 사할린의 태평양 연어 어획량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어종별 조업하는 업체들의 정보에 따라 9월 19일 기준 태평양 연어 어획량은 5천4백50만3,363톤이었다. 그중 송어는 3천4백70만 7,166톤, 연어 1억7천6백41만 569톤, 홍연어는 134만 7,634톤, 은연어는 80만,994톤에 달했다.

조업 업체들의 정보에 따르면 2023년 사할린주 태평양 연어 어획량 결과는 지난 2021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 사할린, 처음으로 러시아 서핑 선수권 결승전 개최

9월 20일(수) 서핑 종목 러시아 선수권대회 〈쇼트 보드〉 결승전이 사할린 주에서 시작됐다. 사할린주에서 이 종목의 대규모 전국 경기는 처음 열린다. 경기는 흡스크 아블로츠노에 마을 수역에서 진행됐다.

선수권 결승전에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연해주, 캄차카, 타타르스탄, 칼리닌그라드, 사할린 등에서 출전한 선수들 48명이 경기를 치렀다.

##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김만삼 노동 영웅과 그의 손자 김 라디온

올해 5월에 필자는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관련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이 학술회의가 광주에서 진행되었는데 이튿날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견학 프로그램으로 광주 고려인 마을에 있는 고려인문화관을 찾았다. 거기에는 고려인 문화와 역사가 소개되었던 전시장으로 특히 고려극장과 고려일보를 중심으로 전시회들이 펼쳐졌고, 김만삼 소련 사회주의 노동 영웅에 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매체들의 기자들이 문화관을 돌아보고 있는 사이에 낮이 익은 젊은 여성 분이 나타났다. 그녀는 2000년대에 사할린국립대 한영과에서 공부했던 김 엘레나였다. 너무 갑작스럽게도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그는 남편과 함께 사할린에서 오신 아버지를 모시고 안산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고려인 역사 문화관에서 열린 김만삼 특별전 때문이라고 했다. 알고 보니 벼 농사로 유명한 김만삼 노동 영웅은 레나의 아버지 라디온 세묘노위츠에게는 할아버지였고, 레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김만삼 특별전을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된 엘레나

는 이에 사할린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알려 아버지가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겨 전시회에 오게 되었다.

사실 사할린한인들은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를 대충 알고있으나, 구소련에서 고려인 206명이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신문에 김만삼 할아버지와 김 라디온 손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김만삼의 삶과 공로에 대한 한글로 적힌 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접할 수 있었고, 김 라디온 세묘노위츠와는 여러 사정으로 9월 11일에 드디어 만났다.

1954년생인 김 라디온 세묘노위츠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 치일리 부락에서 태어났다. 바로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다. 라디온 씨의 아버지는 김만삼의 4번째 막내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주로 콜호스에서 일했고 큰형 김홍진은 '선봉(아완가르드)' 콜호스의 농장장이었다. 다만 라디온의 아버지 김성규 씨가 가족 중에서는 유일한 교육자였다.

(7면에 계속)

## 김만삼에 대하여

### 개설

1928년 이후에 연해주의 콜호즈(kolkhoz)에서 활동하다가, 1937년에 카자흐(Kazakh) 공화국으로 강제이주된 뒤에는 선봉(先鋒) 콜호즈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벼의 재배 방법을 개선하여 수확량을 늘리는 등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다.



### 생애

1883년에 러시아의 우수리스크(Ussuriisk)에서 태어났다고 전하지만, 『레닌기치』에는 1882년에 조선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3살 때부터 유랑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35살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1928년~1929년에 소련은 산업 집단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때 연해주에 설치된 벼농사 콜호즈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1937년에는 가족과 함께 카자흐 공화국의 크질오르다주(Kzyl-Orda州) 칠리 구역으로 강제이주

되었다. 아들인 김홍빈과 함께 벼농사 재배 콜호즈인 <선봉(Avant-Garde) 콜호즈>를 세워, 벼농사의 확산은 물론 현지 토양에 적합한 벼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1940년에는 1헥타르당 쌀 8t을 생산하였는데, 1942년과 1944년에는 1헥타르당 각각 15t, 15.2t을 생산하여, 당시 일반적으로 1ha당 3~4t 정도 생산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하였다. 1958년에는 4년 전에 연해주로 돌아간 가족을 따라 크질오르다에서 우수리스크로 이주하였다. 1964년 8월 19일에 세상을 떠났다.

### 활동사항

크질오르다로 강제이주된 뒤에는 벼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다만 1940년대 초에는 벼농사의 핵심적인 노동력이었던 성인 남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어, 고려인 콜호즈에서는 정상적인 농사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 당국은 기계장비의 지원도 없이 고려인 콜호즈에 생산량 증대를 요구하였다. 1941년~1945년에 '선봉 콜호즈', '볼세비키 콜호즈' 등 고려인 콜호즈는 벼농사 재배 면적을 3.5배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요청한 것 이상으로 달

성하였다. 자연히 수입이 크게 늘어, 황무지에 들어선 고려인 콜호즈에는 전기발전 시설은 물론, 문화회관이나 학교 등이 건립되거나 개선되었고, 생활환경도 좋아졌다.

김만삼은 벼 재배 실험을 통해서 종자와 종업기술 등을 개선하면서 수확량이 증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썼다. 특히 적기에 일정하게 물을 대는 방법, 광물비료 사용과 제조작업 병행으로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이를 이용하면서 다른 콜호즈에도 전파하였으며, 특히 황무지에 관개용 수로를 건설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성과와 농업기술은 카자흐 공화국 정부의 인정을 받아, 소련 연방 레닌농학아카데미 카자흐 지부 회의, 국민경제발전 박람회 등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 상훈과 추모

농업 분야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어, 1941년에는 명예훈장, 1945년과 1946년에는 붉은기 노동훈장을 받았고, 1947년에는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정착시킨 공로로 국가상을 받았으며, 1949년 5월 20일에는 '사회주의 노동 영웅'으로 불려졌다.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 모 저 모

### <2023-국민 크로스컨트리>대회에 6천여 명의 사할린 주민들 참가

9월 16일(토) 전국 <2023 - 국민 크로스컨트리대회>달리기 대회에 사할린주에서 6천여 명의 경주 애호가들이 모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달리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1,700명 이상이 출발선에 섰다.

전 러시아 기획 <국민 크로스컨트리>가 매해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5백만여 명이 이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회 출전 연령은 5세부터이고, 경주 코스는 500m부터 시작해서 1km, 4km, 6km, 8km, 12km의 코스가 준비됐다. 이번 코스는 고리키 거리를 따라 승리 광장에서부터 예세니나 거리 교차로까지였다.

### почти шесть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робежали «Кросс нации-2023»

16 сентябр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2023» собрал почти шесть тысяч любителей бег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ый масштабный забег прошё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на старт вышли более 1700 участников.

«Кросс нации»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роект. Ежегодно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около 5 млн человек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их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В забег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тле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5 лет. Для них подготовили дистанции 500 метров, 1, 4, 6, 8 и 12 км. Маршрут пролегал по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от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до перекрестка с улицей Есенина.

### 대학생들, <고대 러시아의 결혼과 가족> 견학 및 도전 게임에 참가

'푸쉬킨 카드' 기획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기념박물관에서 주제별 견학 <고대 러시아의 결혼과 가족>을 진행했다. 9월 15일(금)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대 러시아의 결혼과 가족> 견학 및 도전 게임이 조성됐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참가자들에게 고대 루시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올렸는지, 13세기 무뎀의 표트르와 페브로니아의 혼인 결합에 대한 전설을 얘기해주었다. 이 두 성인은 집안 화덕과 사랑의 수호자로서 정교회 수호성인의 날을 즈음하여 러시아에서는 7월 8일을 '가족, 사랑, 충실'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박물관 직원들은 대왕의 혼인 성사뿐만 아니라 혼인식 날 잔치상에 어떤 전통요리들을 반드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 알려주었다.

### Студенты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экскурсии-квесте «Брак и семья в Древней Рус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рошла тематическая экскурсия «Брак и семья в Древней Рус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ушкинская карта». 15 сентября для студентов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экскурсия-квест «Брак и семья в Древней Рус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ам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проходили свадебные обряды на Руси, а также легенду о брачном союзе XIII века Петра и Февронии Муромских. Эти святые являются хранителями домашнего очага и любви. К православному дню памяти святых приурочен, отмечаемый в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8 июля,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рассказал не только про брачные союзы великих князей, но и о том, ка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обязательно на праздничном столе.

### 도시의 날 맞아 코르사코브 주민들에게 무료 생선 수프 대접

9월 15일(금) 코르사코브의 콤포소몰스카야 광장에서 도시의 날을 기념하는 '아트-아르바트'와 미식 축제가 열렸다. '아트-아르바트'에는 40명의 장인들이 참가했고, 미식 축제에서는 방문객 모두에게 생선 수프를 제공했다고 코르사코브 시 행정부가 전했다.

간이 매장에서는 가족제품과 돌 장식품, 장난감, 자수와 그림, 사할린을 주제로 한 기념품, 수제 다과, 다양한 의류 등 여러 가지를 선보였다.

미식 축제는 박람회 반대편에 있는 콤포소몰스카야 광장에서 열려 행사에서 170루블리로 모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지역 요식업체 사업가들과 함께 코르사코브 한인협회의 대표들도 자체 요리들을 선보인 가운데 동일한 가격으로 카레라이스, 불고기, 떡볶이, 튀김 등 몇 가지의 민족 요리들을 즉석에서 제공했다. 축제의 주요 요리는 '우하' 생선 수프로 4곳의 간이 행사장에서 준비해 방문객 모두에게 대접했다.

### Жителей Корсакова накормили бесплатной ухой в честь Дня города

На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лощади в Корсакове 15 сентября прошёл Арт-Арбат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города. В Арт-Арба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0 мастеров, а на гастрофестивале всех накормили ухо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

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ых прилавках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изделия из кожи, украшения из камня, игрушки, вышитые и нарисованные картины, сувениры на сахалинскую тематику, конфеты ручной работы, различные элементы одежд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расположился на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лощади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стороне от ярмарк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угощени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можно было попробовать по цене в 170 рублей.

Вместе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рестораторами свою кухню предложи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 единой цене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райскари, пульгоги, топпокки, темпур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А главным угощ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уха — ее готовили сразу на месте, в четырех палатках на площади.

### <2023 - 고마워 인터넷>경연에 50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들 초대

<2023 - 고마워, 인터넷> 제9회 전국 컴퓨터 교양 분야 개인별 능력 경연에 참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50세 이상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면 참가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측은 전했다.

이 경연은 로스텔레콤과 러시아 연금재단이 주최한다. 이 경연은 2015년부터 컴퓨터 강좌에서 수강했거나 독자적으로 컴퓨터를 익힌 연금 수급자와 연금 수급 전 연령(50세 이상)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열리는 컴퓨터 강좌에 250명이 수강한 가운데 수강생들은 '인터넷의 아주부카(기초)'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익혔다.

### Сахалинцев старше 50 лет приглас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Спасибо Интернету-2023»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IX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ичных достижений в сфере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Спасибо Интернету – 2023». К участию в нем приглашаю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 50 лет и старш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ают ПАО «Ростелеком» и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и. Он проводится с 2015 года сред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енсионного и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50+), а также пенсионеров-инвалидов,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на курсах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или освоили работу на П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8면에 계속)

## 사할린한국교육원, 새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수업 시작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도 역시 9월 초부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을 시작했다. 한국문화반 2개 반을 포함한 전체 강좌 수는 16개이고, 수강신청자는 232명이다. 이번에 한국어 강좌는 입문, 초급, 중급반 3단계로 편성됐다. 입문반 희망자는 지원자가 넘쳐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으나, 중급반 2개 반은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었다고 교육원 측이 전했다. 수강생 최고령자는 한국어 입문반에 지원한 전경구씨(71세)이고, 최연소자는 역시 한국어 입문반에 지원한 나카야마 콘스탄틴(14세) 외 11명이다. 참고로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강좌는 14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본사기자) (사진: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돌린스크, 사할린주 한인협회 배 미니축구시합 개최

지난 16일(토) 돌린스크에서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미니축구시합이 열렸다.

사할린 한인 미니축구시합을 해마다 개최하는 가운데 전통이 된 이 대회는 올해 작년 대회에서 주 한인협회의 우승컵을 차지한 돌린스크팀이 이번 미니축구시합을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는 코르사코브, 포로나이스크, 돌린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2개 팀, 총 5개 팀들(각 팀은 8명으로 구성, 그중 한 명은 보결 선수)이 참가해 경기를 치른 결과 1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2위는 돌린스크, 3위는 포로나이스크 팀이 차지했다. 이들에게 주 한인협회의 메달과 상금을 수여했고, 1등 한 팀이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날 '최고 수비수', '최고 공격수', '최고 골키퍼'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하고, 시상했다. 내년 미니축구시합은 이번에 우승컵을 차지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개최한다.

(사할린주한인협회의 돌린스크 대표 윤태욱) (사진: 주한인협회 제공)

## 동포청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해 동포 자긍심 고취"

### 출범 100일 간담회에서 로드맵 발표... "동포사회 · 모국 상생에 앞장" 예산 늘려 한글학교 · 소외 동포 ·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활약할 수 있도록 현지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1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일은 현지화하는 동포 차세대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동포사회가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공공외교 사업은 외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 등에도 한국을 알리는 일이므로 현지 사정에 능통한 동포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재단과 달리 동포청은 정책 수립 기능이 있다."며 "이를 위해 출범 후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고, 내년까지 다수의 동포가 거주하는 중국 등 20여개국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대상 확대, 선전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이탈 조항 완화,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도 소개했다. 2023년도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이었는데 동포청의 내년 예산은 1천55억원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더해진 측면도 있지만 이를 빼도 147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한 것은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차세대 육성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을 160억원에서 204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출범 100일을 맞아 인천시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기철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 강성철)

억원으로 28% 증액했고, 차세대 초청 연수 규모를 2천300명에서 3천명으로 늘렸다. 5년 후에는 9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으로 소외 동포 초청사업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꼽았다.

원폭 피해 재일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포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에 나선다. 또 인구조절벽의 해법으로 재외동포의 모국 체류·정착 지원 사업도 펼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대상은 해외 거주 동포로 제한돼 있어서 국내 체류 동포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었다. 동포청은 이들이 모국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재단이 펼쳐왔던 사업에 관해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에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필요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했기에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소통해 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동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반가사유 / 박명숙

입꼬리만큼 마음의 꼬리를 끌어올리고  
사유는 반만 접어 무릎 위로 올린다  
그믐을 흘러들어온 달빛이 정박 중이다  
떠날 듯 머무를 듯 잠길 듯 떠오를 듯  
뺨에 물린 손가락으로 고요를 짚는 동안  
눈초리 휘어진 달빛이 그믐을 빠져나간다



"반가사유. 천 년의 역사 속 어느 미로 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살짝 올린 입꼬리를 바라봅니다. 절반 정도 접어 무릎 위로 올린 다리 모양새를 살피더니 어느새 달빛에 반사되는 '반가사유상'을 음미합니다. 읽는 제 마음조차 차분해지는 순간입니다. 시인의 시인이 잠시 흔들리네요. 떠날 듯 머무를 듯 잠길 듯 떠오를 듯. 그 어떤 형태로 다음 동작이 이어질 지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역시나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듯 숨죽인 듯 고요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이라니. 반가사유상을 음미하며 잠시나마 '침잠'의 시간을 음미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큰 즐거움이겠지요. 천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텅그러니 아직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단어를 고르는 듯한 '미륵'의 현현을 통해, 이제 시인은 고요 속에서 다시 달빛이 비껴 지나가는 '찰나'를 느낍니다. 시인이 안내해주는 짧은 몇 마디의 말이 마법처럼 '찰나'를 깊고 융숭하게 채워줍니다. 단정한 말의 맛이 일품입니다.

아름다움도, 추악함도, 선함, 악행, 미련, 슬픔 모두 어찌하면 불교에서 되뇌이듯 '찰나'가 아닐는지요. 우리 인간의 생애는 기껏 1백년의 삶을 영위하건만, 잠시나마 행인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과 감정들을 두고 백만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늘 이겨내기 힘든 '짐 덩어리'라고 여기며 들쳐안고 괴로워하겠지요.

해탈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버거운 '말'을 벗어내는 과정입니다. 불편한 마음, 찝찝한 마음, 엉터리처럼 꼬여버린 거짓된 마음, 욕망과 쾌락을 쫓는, 아니 물리치기 힘든 이 수많은 번민, 고뇌들이라니. 과연 우리 인간은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안전한 도로> 학생 온라인 올림피아드, 사할린주에서 시작

사할린주에서 <안전한 품질 좋은 도로>국민 기획에 따라 <안전한 도로> 전 러시아 학생 온라인 올림피아드가 9월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치.루 Учи.ру'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다. 온라인 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1학년 - 9학년 학생들의 도로에 대한 상식을 향상시키고, 시험하게 될 거라고 사할린주 도로교통산업부가 전했다.

"도로상 안전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도로상의 안전 규칙을 알아야 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우리의 차세대와 부모들에게 도로상 안전의 가장 중요한 규칙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올림피아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도로상 안전의 주제를 심화시키고, 실생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사할린주 도로교통산업부의 차관 에두아르드 리가 설명했다.

온라인 올림피아드 대회는 <안전한 도로> 국민 기획의 지원으로 4년째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할린 전 지역에서 온라인 올림피아드 대회에 1학년 - 9학년 학생 1만5천 명이 참가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 Корейская каллиграфия (1)

В сентябре 2023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му областном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музею исполнилось 40 лет. За эти годы нам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коллекцию произведений каллиграфии, живописи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тер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считывающую более 700 единиц хранения. В марте 1999 года была открыта постоянная экспозиц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егодн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и художн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лученные в дар в 2016 год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музе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воляет знакомить сахалинцев с коллекцией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з фондового собрания на передвижных выставках.

Еженедельная колонка предостави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читателя с экспонатами из музейного собрания в черно-белом формате.



Хан Сан Ун (1943 г.р.)  
Бамбук. 2016 г.  
Бумага, тушь, водяные краски. 68x107; 76x120  
Поступление: дар автора, 2016 г.  
КП-10248 Ж/в-1452

В среде художников и каллиграфов бамбук являлся объектом особого эстетического воплощения в живописи. Сочинения теоретиков искусства о живописи бамбука наполнены рассуждениями о таинственной внутренней связи природы художника с символической благородной сущностью образа бамбука. Утверждалось, что создать образ бамбука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особые минуты озарения и вдохновения. Как писал Су Ши: «Чтобы писать бамбук, надо создать его образ в душе»

Монохромная тушевая композиция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склоненного слева направо стебля бамбука на фоне ночного неба с луной. В нижней части композиции стихотворные строк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хангыль в скорописном стиле:

*Погасло солнце, во тьме// задремала бамбуковая роща.  
Гляжу на далекую луну, // одинока она во вселенной!  
Сажу, грущу о друге, // от слез промокли рукава!  
Песней о луноликой моей утешаю душу свою...*

(Перевод Романа Хе)

Работа выполнена в живописной манере широкими мазками и характерным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м рисунком линий. Для автора, как художника направления мунихва,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частью композиции является поэзия, способствующая раскрытию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героя.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 164 молодых историка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не было стыдно»

**164 молодых историка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не было стыдно»**  
**Так прозвучал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студентов-историков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Ким Кён Чжун (kia0917)**  
Помните ли вы «Кампанию по сбору подписей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сь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историк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Тогда петицию подписали 455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ростых граждан, и результаты были передан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татья: <https://omn.kr/25f3m>).

После выхода статьи, в которой сообщалось об этой истории, набралось еще больше подписей — 952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0:00 5 сентября), которые мы снова передали в военную академию.

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академия не дрогнули. Конечно, мы знали, что борьба будет нелег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озглавляемые Фондом «Мемориал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начали «Кампанию за сбор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корейцев» и проводят ежедневные эстафетные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перед зданием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Йонсане, и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 Историки всей страны готовят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Меня очень порадовало, что 13 числа 51 организация историков выпустила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Старшие историки высказали свое мнение, и я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молодые историки не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Я подумал: «Почему бы нам не собраться группой историков и не выступить с совместным заявлением?» И я поспешно написал заявление и обратился к студентам и аспирантам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ульте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том числе и зарубежных) с призывом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ам в знак солидарности.

Мы решили выпустить заявление 17 сентября, в 83-ю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армии Кореи. Времени у нас было немного, поэтому мы попросили всех наших знакомых,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хся на истор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и подели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и они с готовностью согласились, и список один за другим стал пополняться студентами-историками из раз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траны.

Наконец, я разослал электронное письмо на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ультеты 41 университета страны с просьбой призвать своих студенто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на уровне факультета. Некотор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 энтузиазмом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призыв, а комитет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университе-

та Кюнг Хи даже предложил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кции от имени деканата.

Один из студентов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просил: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можно изменить мир, собрав значимых людей?*»

Этот вопрос я получил от одного из студентов-историков, когда мы готовились к выпуску совместного заявления. Он сказал: «Я хочу спросить, в чем смысл этого движения?»

У меня были свои моменты скептицизма, когда мы создавали первые петиции и протесты, но разве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с постоянными сомнениями типа: «А принесет ли это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все же они оставались верны своему делу, потому что верили, что однажды мир изменится и кто-то должен что-то сделать для этого!

Я ответил на этот вопрос так: «Я делаю это, чтобы мне не было стыдно». Когда-нибудь мы все будем стоять перед классом, но если мы сейчас промолчим ради своей лич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можем ли мы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своим ученикам, что им не должно быть стыдно и что они должны противостоять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ак это сделали повстанцы? Только подумав об этом, мне стало так стыдно за себя.

Однако я понял, что есть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историк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мужество выступить против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обрав 1-2 подписи и выпустив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9.00 17 сентября к совместному заявлению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164 студента-историка из 35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месте с ними мы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ем пл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 Ёля по демонтажу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и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формы.

Наши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ельно ясны. Мы требуем, чтобы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иняло «Резолюцию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а также призыва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н Сок Ёля немедленно отозвать план по демонтажу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выявить и наказать виновных в возникновении этой ситу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мы обращаемся к нашим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м (аспирантским) читателям с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Чтобы побудить большее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вижению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пожалуйста, распечатайте приведенное ниже заявление крупным шрифтом и расклейте его в кампусе сво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публикуйте фотографи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чтобы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Мы также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перед зданием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Йонсан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Фондом «Мемориал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Акция протест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эстафетными с 12 до 13 часов

ежедневно до 6 октября (кроме воскресенья и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Нам срочно нужен один человек для участ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здесь: <https://forms.gle/5Cj1g7yz1tMiz6zN7>).

В связи с 83-й годовщиной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армии мы хотели бы опубликовать следующее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корейских историков.

### [Полный текст заявления]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историков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убрать бюст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с терри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Все началось с демонтажа бюстов пяти героев войн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н Бомдо, Ким Чва Чжин, Чжи Чхон Чхон, Ли Бом Сок и Хо Ён), установл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Однако, столкнувшись с резкой реакцие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демонтировать только бюст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и вынести его за пределы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Странники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не стеснялись оскорблять человека, посвятившего свою жиз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траны, служившего командующим Армие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Они используют устаревшую «теорию цвета», чтобы очернить его, как будто он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массовое убийство свое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народа.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Ли Чон Соп оправдал демонтаж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а, сказав: «Поднимался вопрос о том, должен ли быть человек с историей коммунизма», и другие невыразительные слова.

В 2018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установил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бюсты пяти героев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ровозгласив: «Мы возьмем арм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к корень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а Новую военную академию — как мать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Однако после см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зменило свое мнение и заявило: «Духовным корнем армии яв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обороны».

Академия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DSSA) была создана воен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ША в мае 1946 года, а ее первым директором стал майор Ли Хен Гын, бывший капитан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и прогерманский националист.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видит духовные корн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в школе, созданной воен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ША и возглавляемый капитаном прояпонской армии, а не в новой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которая готовила независимых солдат. Ходят даже злые слухи о том,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установки бюста сторонника генерала Пэк Сун Ёпа на том месте, где был демонтирован бюст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 Лог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открывают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еул, 15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одобрила планы разрешить логистическим компаниям спонсировать визы E-9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 фоне того, что она назвала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ботодатели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огут нанимать работников из 16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ля работы по визам E-9. Но план, утвержденный Комитетом по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Сеула, откроет двери для лог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и субподрядчиков аэропортов, чтобы нанимать их тоже.

Смягч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однако, будет ограниче-

но основными видами ручной работы и не позволит им работать водителями доставки. Такие планы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во время совмест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 стратегии инноваций в сфер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частным секторам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Бан Ки Сун,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заявил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что новый шаг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тников в отрасли, добавив,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процедурой», чтобы убедиться, что политика внедряется.

Первые такие работники получат право начать работу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обычно требуется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заявки от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наня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найти подходящие кандидатуры.

Чиновник добавил, что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начнет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от лог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Аналогичное дерегулирование ранее применялось к визам H-2, по которым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11 стран, включая Китай,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но этой меры оказалось недостаточно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растущего спроса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сказал он.

Между те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 пределами Сеула с численностью сотрудников 300 и более теперь смогут нанимать работников по визам E-9. Ранее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имели только производители с менее чем 300 сотрудниками и капиталом в 8 миллиардов вон (6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работает над привлечением EXPO-2030 в Пусан

19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аходящийся в Нью-Йорке для участия в ежегодно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ами восьми стран - Кот-д'Ивуара, Ганы, Монако, Суринама, Лесото, Белиза,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Обсудив с ними вопросы поли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своих коллег поддержать южнокорейскую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2030 года в Пусане. В первый день визита, 18 сентября, Юн Сок Ёль встретился с главами девяти стран - Шри-Ланки, Сан-Марино, Бурунди, Чехи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Боснии и Герцоговины, Дании и Черног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в Нью-Йорке порядка 40 дву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главы стран, с которыми встретился Юн Сок Ёль, выразили поддержку кандидатуре Пусана и пожелали успеха в проведении выставки.

## Спикеры парламентов РК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брались в Сеуле

19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пикеров парламентов РК и пят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Ким Чжин Пхё призвал своих коллег «вместе идти по пути процветания к новой эр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нференция завершилась обедом, который устроил мэр Пусана Пак Хон Чжун. Он призвал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оддержать южнокорейскую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в 2030 году в Пусане.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Ерлан Кошанов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парламентами поможет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шестью странами. Подоб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ежегодн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онференция спикеров парламентов пройдет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 Граждане РК хранят в виде виртуальных активов 130 трлн вон

По данным Налого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около 5.400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сообщили о наличии у ни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ов за рубежом на общую сумму 186 трлн вон (140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учитывались депозиты на сумму более 500 млн вон (376 тыс. долларов).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римерно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ым. С этого года виртуальные активы за рубежом вошли в список обязательных для декларирования. 70% указанной суммы или 130 трлн вон (98 млрд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или виртуальные активы. 120 трлн вон (90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ишлось на компании, остальные 10 трлн вон (8 млрд долларов) - на физические лица. В среднем на одно частное лицо приходится виртуальных активов на сумму 7 млрд 600 млн вон (5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Самые крупные суммы находятся во влад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30 до 39 лет. Объем активов на счетах зарубежных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сократился на 6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связано с замедлением темпов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падением стоимости ценных бумаг. Налог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РК с этого года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требует декларирова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за рубежом, в том числе, виртуальные, если их объем превышает 500 млн вон. Невыполнение этого требования влечёт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штрафа и уголовного преследования.

## РК увеличивает экспор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Кита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контентные всё активнее проникают на китайский рынок, доступ на который был закрыт после размещения в РК в 2016 году американских систем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THAAD.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начало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в Кита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Лунный человек». Картина имела большой успех, заняв по итогам года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Фильм является экраниз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ебтуна или интернет-комикса «Moop You».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ентные,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кинофильмы, вебтуны, романы и сценарии, ложатся в основу нов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ют сочетание таких черт корейских контентных как универсальность и уникальность. Такой подход к продвижению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ных отличается от прямого экспорта готовых продуктов меньшим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Глава Пек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Юн Хо Чжин отмечает, что вебтуны не обладают значимым социальным влиянием, что избавляет их о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процедур одобрения при продаже на китайском рынке. Кроме того, торговля сценариями и лицензиями на интернет-контен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без серьез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й,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ыражают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этот сегмент внесё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0 год объём китайского рынка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ных составлял 13,5 млрд долларов. (RKI)

## Здоровье лидера оппоз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казалось в опасности из-за голодовки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лидер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ппозиции Ли Чжэ Мёна оказалось под угрозой в связи с проводимой им уже более двух недель голодовкой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действий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Правящая и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обратились к Ли с просьбой прекратить голодовку, а оппозиция заявила о намерении вынести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вопрос о вынесении вотума недовер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траны.

Прошло уже 17 дней с того времени, как 31 августа лидер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обвинил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 попрании норм демократии и объявил голодовку протеста, заявив, что это "последнее возможное для него сред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ы". Сама голодовка была объявлена бессрочной, а условиями для ее прекращения были названы извин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ароду, полная смен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реформы госуправления 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а также иск к Японии по поводу сброса в океан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 Ли Чжэ Мён считается главным претенденто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требования к политическ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выдвинуты те, на которые оно никогда не согласится. Политика также обвинили в том,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пытается затормозить ведущееся против него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делам следстви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он уже пять раз вызывался на допрос.

Ожидалось, что под тем или иным предлогом Ли Чжэ Мён скоро прекратит свою акцию, но, судя по всему, он не намерен сдаваться. Осмотревшие его медики констатировали, что из-за голодовки состояние политика стало серьезно ухудшаться, он испытывает серьезный упадок сил. Врачи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все это может очень плохо закончиться для Ли,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кстати говор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на выборах лидера страны в 2027 г. Медики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олитику прекратить свою акцию и занять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здоровья.

С аналогичными по сути призывами обратились к Ли Чжэ Мёну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ников - штаб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То же самое настоятельно его попросила сделать и делегация от его же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оторая тоже посетила его, удостоверившись, что 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слаб. Последний поблагодарил за заботу, но пока не намерен прекращать свою акцию протеста.

В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ях правящая и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разошлись. "Сила народа" отметила, что Ли надо набраться сил и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екратив устраивать политическое шоу. Оппозиционная "Тобуро", которая имеет большинство мест в парламенте, наоборот усилила давление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годня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оставить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парламенте) вопрос о вынесении вотума недоверия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траны во главе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Хан Док Су.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209(9154), 16 сентября 2023 г.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164 молодых историка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не было стыдн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глядываясь назад, я вижу, что состояние Юга тоже не самое прекрасное, и повсюду стоят про-японские блоки. Силы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едателей уже глубоко укоренились, даже в армии. Они даже получают благодарности». — Мун Иль Мин, «Обращение к товарищам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20 декабря 1947 г.)

Я до сих пор слышу возгласы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Мун Иль Мина, который 76 лет назад критиковал контроль над армией со стороны про-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арм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пошел еще дальше, предложив переименовать подводную лодку ВМС РК «Хон Бом До», 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да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прос об отмене медали «За оборону страны», которой был награж-

ден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Однако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за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итуации, хранит молчание.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по вол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Конститу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озглашает, что она является наследницей правовой системы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созданного Движением 1 март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а основана на движени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героев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скорбление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 это анти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акт, отрицающий наши собственные корни».

В ию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установило гигантскую статую Пэк Сун Ёпа в Дабу-дон (Чхильгок) и удалило запись «сторонник генерала-националиста» из информации о месте захороне-

ния Пэк Сун Ёп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военном мемориале. Теперь она замышляет превратить геро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едателя. Как далеко зайдет «реформа истории» Юна?

Мы, студенты-историки, не будем молчать перед лицом этого отрицания нашей гордой истор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писанной кровью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отканной потом ученых. Мы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ем этот возмутительный ак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как «переворот против истории» и требуем следующего.

1.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должно принять резолюцию против демонтажа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н Сок Ёля должно отменить план по демонтажу бюст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и наказать виновных в возникновении этой ситуации!

17 сентября 2023 г.

###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на програм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азовый уровень)»

Целью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дающих соврем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и навык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эффективн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для обучения восточным языкам учащихся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 Задачи программы:

- рассмотре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формы и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 выработа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и умен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углубить знания о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 Категории слушателей:

Целевая аудитория программы –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желающи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об-

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офилю предшествую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 освоению программы допускаются лица, имеющие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и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опыт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ки и реал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а также лица, получающие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и (и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и условии обучения на выпускном курсе).

Форма обучения – очно-заочная с примене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нлайн).

**Срок обучения:** октябрь 2023 г. – июнь 2024 г.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до 25.09.2023 г.

**Контакты:** de\_kv@sakhgu.ru (Де Ка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7-914-123-23-41 (Корнеева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 Иностранные делегац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масштабном форуме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Несмотря на антироссийские санкции,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В их числе – Китай, Индия, Вьетна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7 по 29 сентября.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будет делегация компании SEAMAP (Центр морской съемки и картографии) из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ьетнам. Это одно из ведущих вьетнам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едоставляющих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услуг по морской съемке, картографированию, топографической съемке на суше, а также по морской навигации и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ю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За более 25 лет развития SEAMAP добилась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За точны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 эффективные услуги компании доверяют клиенты по всему миру. Компания выполнила более 200 проектов для таких изв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как Idemitsu, Sumitomo Corp., BP, Premier Oil, Вьетсовпетро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ведущ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мпан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урсом, задан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орот на Восток», налаживая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форума станет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а фоне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 В этом году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будут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условиях ограничений,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реализация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Мы приглашаем зарубежных партнеров также к расшир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локализации нефте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У нас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нефтесервисные компании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ожидает множество нововведений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елового общения.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соберу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ведущи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компании, поставщики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технологий, топовы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Кроме того, традиционно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м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дущ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рамках круп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круглые столы, встречи «один на один» с операторами проектов, дебаты, панельные дискуссии и подпис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приятия добыч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переработк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форум и подробнее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Сайт мероприятия: [www.sakhalinoilgas.ru](http://www.sakhalinoilgas.ru).

## Сахали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нвалидов» отмечает 35-лет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празднованию 35-летия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нвалидов».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и отметили грамотам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и поздравили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В августе 35-летие отметило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нвалидов». Поэтому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начало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го адрес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здание достой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сех граждан России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значимый фактор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этой большой ответ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такие крупные, авторитет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нвалидов».

–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бизнес-структурами вы многое делаете для реш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ем по здоровью, помогаете им обрести веру в себя, в свои силы,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аботу. Содействуете в развитии их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вовлечению в занят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спортом, туризмом, – отмечается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адрес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собравшихся поздравили зампред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 Я рад сегодня поздравить нашу самую большую сахалинск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Вы объединяете в своих рядах огромное число людей, оказываете им поддержку, защищаете их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Вы побуждаете не только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но и нас всех, не ждать, пока кто-то решит проблемы, а активно решать их самим. Особенно ценно, чт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и организацией налажен тесный контакт, а вместе мы сможем сделать больше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 обратился Владимир Ющук.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слали и космонавты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станции. А ряду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ства вручили различные награды.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боту по защите прав инвали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интеграции инвалидов в общество, адресную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мую инвалидам,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амятным подарком поощр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нвалидов». Знак «Почетный член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нвалидов» получ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ронайской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дежда Гладкова,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Всеросси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инвалидов 1 степени» отмет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нтрольно-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ру Демагину. Награды вручил почетный г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нвалидов» пара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Михаил Терентьев.

–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егодня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Я побывал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ах, общался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инвалидам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десь уделяет личное внимание проблемам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регионе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инвалидов сред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очень си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члены которой тесно работают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ласт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ую среду и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Желаю, чтобы на все хватало здоровья, времени и ресурсов, с праздником, – отметил Михаил Терентьев.

Еще нескольких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оощрили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Всеросси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инвалидов II степени» и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организации. А двум сахалинским фотографам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за участие в 9-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отоконкурсе о жизни инвалидов «Без барьеров».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поздрав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 49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обновят на Сахалине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 рамках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 опор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явится новое 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Один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Круглогодичное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и районами возможно обеспечить благодаря динамичному развитию современно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комфортной и безопасной сет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а также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как внутри региона,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в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адресн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куда включены важнейш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имер,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рупнейшего объекта – это объездная дорога в обх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Первый этап работ – участок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 километров –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ов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артерия позволит разгрузить областную центральную магистраль, перераспредел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е потоки, вывести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за пределы города.

Кроме того,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главной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вая полоса позволит снять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приему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что благоприятно скажется на развитии авиатранспорта и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остроят и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49,1 км автодорог. Всего – 19 объектов.

Программа сформирован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ее включены не только объекты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о и других важнейших сфер. К пример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Поронайске,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истем водоотведения в Ногликах и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Оно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с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ор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регион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98 объект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33,8 млрд рублей, из них в 2023 году – 89 объект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20,5 млрд рублей.

В регион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активная политика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формирования центров социальн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людей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в ДФО.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ыбрали лучшие подъезды

Итоги пятого месяца конкурса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подъезда подве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охо-

дившем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49 заявок.

Лидером по числу поданных заявок стал Порона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едставив на конкурс шесть подъездов. Четыре подъезд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т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боролись три подъезда.

– В Смирных инициативные жильцы дома № 31 на улице 8 Марта захотели украсить свой подъезд необычными рисунками. Чтобы осуществить задуманное, обратились к местной художнице Дарье. На стенах нарисовали деревья, кошек, волшебный фонарь и птиц. Перед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оформлением подъезд был отремонтирован – выполнили шпаклевку, покраску, побелку несколько раз. Колор выбирали сами жители.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тамбур входной группы, –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УК «Наш дом Смирных» Галина Зимина.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Чтоб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одъездов, губернатор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субсидиях для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Предприятиям возмещают половину затрат на ремонт мест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На эти цели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235 млн рублей.

–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амих жильц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мест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оформление стен, установка цветов и предметов декора.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ем любые идеи по созданию уюта и комфорта в подъездах,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декабре 144 победителя всех ежемесяч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этапов выйдут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где будут конкурировать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за звание самого уютного, самого зеленого, самого 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и самого креативного подъезда. На област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нтов будет оценивать эксперт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азличным критериям, как техническим, так и эстетическим.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определят три призовых места.

Напомни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в ремонте подъезд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Большая часть объектов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это как минимум 4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пришел газ

Сегодня для жителе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ступил долгожданный момент – специалисты АО «Газпром газораспределен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уществили пуск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первые четыре дома горо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подключены еще пять абонентов.

Одним из счастливицов стал Роман Некрасов, проживающий на улице Порт-Сопка, которая входил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газификации. Узнав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ключения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он сразу же подал заявку. Житель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дписал соглашени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ольшую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по догазификации взяла на себ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 Я оплатил только часть суммы, превышающую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Она оказалась существенно меньше стоимости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Около двух недель назад произвели подвод газовых сетей к дому, а сегодня топливо уже поступило. До этого момента отапливал дом углем. А это грязь, пыль, копать. Постоянно приходилось следить за котлом, минимум трижды в день подсыпать уголь. Да и в целом, топить углем было накладно по деньгам, – поделился Роман.

Догазификация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 часть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означил важность подключения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и более экономичному топливу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Ее реализация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ой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ПАО «Газпром».

Как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Евгений Демидов,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уже проложены сет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и частично второго. Третий этап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сейчас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х сетей в селах: Мгачи, Арково, Михайловк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Михайловке 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 во Мгачах.

Напомним,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газификацию домовладения можно, обратившись в отдел ЖКХ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ли в МФЦ, а также онлайн на сайте Единого оператора газификации РФ или Госуслуг.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вопросов можно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также в отделе ЖК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о телефону: 4-32-74. Или задать на горячей линии единого оператора: 8-800-101-00-04, 8-800-700-44-99.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김만삼 노동 영웅과 그의 손자 김 라디온

## (2면의 계속)

1955년에는 김만삼의 가족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아 우수리스크로 이사갔다.

1958년에 라디온은 부모님과 함께 사할린으로 왔고, 아버지는 아나와 구역, 나중에는 돌린스크 구역에서 소콜 마을 조선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라디온 세묘노위츠는 그때부터 사할린 사람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소콜롭스키'습호즈에서 일하게 되었고 4개월 후 습호즈에서 추천서를 받아 우수리스크 농업대학에서 토지간척 부문을 전공했다.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에 따라 라디온도 역시 농사, 농장과 관련 전공을 했다.

대학에서 습호즈에 돌아온 후 처음엔 잠깐 토지간척 분야의 상급 전문가로, 그 다음 바로 습호즈의 토지 간척장으로 1991년까지 15년간 일해왔다. 하는 일도 재미있었고,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지도자로서도 성장했다. 그 당시 계획안에 따라 토지 배수 작업, 간척 작업 등을 많이 했었다. 90년대에 경제가 무너지면서 간척 작업이 필요없어져 김 라디온은 하는 수없이 장사,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도매로 식품, 제품



등을 다 팔았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 목재를 수출한 적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고기를 수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로 경험을 쌓았다.

2000년대 중순에는 아내가 암을 앓으면서 아내와는 생이별을 했고, 몇 년 후에 재혼을 했다.

얼마 전부터는 은퇴하고, 은퇴자로서 삶의 맛을 누리고 있다. 그가 무척 좋아하는 낚시를 자주 즐기고, 이제는 사할린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말한다.

그는 김만삼 할아버지를 많이 존경하고 있다. 사실 어릴 적에 2번 만난 기억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랜 할아버지가 영웅

이란 것도 잘 몰랐고, 그에게는 존경스러운 어른분이었다고 했다.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스탈린상 수훈자로서는 고려인 중에서 유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라디온 세묘노위츠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다.

늘 성실하게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김 라디온 씨는 '소콜롭스키 습호즈'의 토지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그 동안 그가 개척한 토지 간척 작업이 불필요해지고 땅이 농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할린에서 다시 토지 간척작업을 복원할 계획인데 문제는 좋은 전문가가 없는 것이다. 70세를 바라보는 김 라디온 세묘노위츠가 이 작업을 자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할아버지 손주로서 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올해 한국을 다녀온 김 라디온이 할아버지에 대한 한국 전시에 대해 친척들에게 이야기 하니 지금 사촌, 오촌들은 한국 할아버지의 전시회를 찾아볼 계획을 하고 있다.

(배순신 기자)

## [우리말로 깨닫다]

### 언어와 악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말이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말은 신성한 것이고(언어신성관),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언어권위관). 오래전의 말일수록 신의 말과 가까웠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신과 인간이 직접 소통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 말은 신에게 받았다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말은 나와 신을 이어 주기도 하는 진실함의 수단이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말이 변합니다. 말이 진실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로 바뀝니다(언어도구관). 하긴 도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언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전달과 감정의 나눔이 언어의 중요한 기능인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이유에도 의사소통이 핵심과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거짓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말의 소통 기능을 깨뜨립니다. 소통을 방해하고 오히려 거짓 소통을 조장합니다. 그 말을 믿은 잘못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실 믿은 사람에게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속인 이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속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거짓은 악마의 언어입니다.

악마의 언어는 더 끔찍한 장면을 낳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십불렛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장면인데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십불렛이라는 발음을 해 보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 발음을 씹불렛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알고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 죽은 사람이 4만 2천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발음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구약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악마의 언어는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기에도 악마의 언어는 작동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게, 어쩌면 더 비참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대지진의 피해를 조선인에게 화풀이한 사건으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조선인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때 조선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일본어로 십오엔 오십전(十五円五十錢)을 발음해 보라고 시켰던 겁니다. 일본어의 첫소리 유성음을 조선인은 무성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악마가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도 언어는 차별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특히 발음은 놀림거리가 됩니다. 혀짧은 소리라고 놀리고, 시웃 발음을 못한다고 놀립니다. 사투리는 차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로 전학 온 지방 아이들은 사투리로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도 차별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고 사고의 도구이고 진리의 도구입니다. 언어가 상처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언어가 차별의 도구가 되는 순간, 언어는 진짜 악마가 되는 겁니다.

1923년 9월 1일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2023년 올해, 이제 딱 100년이 되었네요. 남의 불행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맹자의 지적처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는 일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살상(殺傷)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 불행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1923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 발음을 못했다는 이유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그때 희생당한 일본인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물론 지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한 조선인에게 깊은 애통함을 표합니다. 예기치 않은 타인의 희생이 내게 슬픈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일입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추석 연휴, 무료로 궁·능 방문하고 무형유산 체험하세요"

추석 연휴기간(9.28.~10.3.)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 휴무 없이 무료 개방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과 민속놀이 체험 가능한 '무형유산 민속놀이터' 운영(9.30.)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해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무형유산과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먼저 궁능유적본부(직무대리 신성희)는 이번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 한다.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당초 월요일(10.2)이 휴관일인 궁·능 유적기관(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세종대왕유적, 조선왕릉)과 화요일(10.3)이 휴관일인 경복궁, 종묘는 모두 추석 연휴기간에 무료 개방하므로, 연휴기간 다음날인 10.4(수)에 모두 휴관한다.

무료 개방 이외에도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도심 속 고궁 야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문화재청의 고궁 대표 문화행사도 연휴기간 중 변함없이 만날 수 있다. 단 '경복궁 야간특별관람'과 '창덕궁 달빛기행'은 별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또한 추석 연휴 전일인 9월 27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10.13.~10.18.)의 대표 온라인 프로그램인 '모두의 풍속도'가 운영된다. '모두의 풍속도'는 누리집(pungsokdo.com)에서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드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도



경복궁 흥례문 권역 (사진 문화재청)



2023 상반기 '무형유산 민속놀이터' 현장 사진 (사진 문화재청)

선보인다.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문화 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무료개방 관련 : 궁능유적본부(☎02-6450-3837)

\* 문화행사별 담당기관

- 경복궁 : 경복궁관리소(☎02-3700-3917), 한국문화재단(☎02-3210-1645, 3503, 3507)

- 창덕궁 : 한국문화재단(☎02-3210-4804)

\* 온라인 행사 '모두의 풍속도' 관련: 한국문화재단(☎02-3210-3506)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9월 30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중정과 전승마루에서 '무형유산 민속놀이터'를 운영한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와 함께 하는 무형유산 체험'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 예약(9.11~27.)으로 참여 가능하며, '누비장'(물고기 잔받침 만들기)과 '선자장'(부채 만들기)은 선착순 15명,

'택견'과 '가야금산조 및 병창'은 선착순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순수건 쪽염색, 한복 체험, 활쏘기, 투호 등으로 구성된 민속놀이와 만들기 체험은 현장 접수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재료비를 포함한 참가비는 모두 무료이다. 단 우천 시에는 장소가 변경되거나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656)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편의 계속)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этом году компьютерные курсы прошли 250 человек. Их обучали по разным программам, в том числе «Азбуке Интернета».

## 사할린 주민, 6개월 이상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

투자 사기꾼들에게 28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남성이 6개월간 속았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자신의 돈을 투자했다고 확신했지만 총 250만 루블리를 빼앗겼다고 사할린주 내부국이 밝혔다.

9월 14일(목)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는 2월 초에 소셜 네트워킹에서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투자기회에 대한 참가 제안의 정보를 받았다. 그는 동의하고, 상대가 그에게 추천하는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았다. 그는 이 앱을 통해 2만 루블리를 입금했다. 그리고 2달간 어떤 계정과 거래하면서 마치 증권 거래나 환율 변동 조작 게임하듯이 지시에 따라 돈이 이체되고, 입금되기도 했다. 이 기간에 그는 앱에서 돈이 적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4월에 이 피해 남성에게 다른 기획에 참가를 위해 제시한 링크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했다. 그는 새로운 사이트에서 개인계정을 설치하고 5개월간 거기에 250만 루블리를 입금했다. 8월이 되어서 피해 남성은 자신의 계정에서 자금 유출이 안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이 앱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다.

현재 경찰은 이 사실을 범죄사건으로 기소하고 추적 수사 중이다.

##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более полугода переводил деньги мошенникам

Мошенники более полугода обманывали 28-летнего жи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 это время он был уверен, что инвестирует деньги, а в итоге лишился 2,5 млн рубл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заявлением в полицию он обратился 14 сентября. Мужчина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ему пришло сообщение в соцсети от неизвестной девушк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проекте. Он согласился и установил на свой телефон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ему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а собеседница. После этого сахалинец внес на платформу 20 тысяч рублей. Далее он около двух месяцев переписывался с неким аккаунтом и по его инструкции делал переводы и вклады, якобы для игры на бирже и заработка на колебаниях валют. Все это время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идел, что его депозит в приложении пополняется.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отерпевшему предложили перейти по ссылке для участия в другом проекте. Он создал на новом сайте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месяцев вносил туда деньги — всего 2,5 млн рублей. В августе мужчина обнаружил, что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пропала функция вывода средств, а затем платформа полностью перестала работать.

По факту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Следств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 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시상: 상장과 상품
  -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